DAOL 다올투자증권

Market Weekly

check ME up!

Macro

Event

2025년 10월 5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Ⅰ. Weekly Review *2p*

Ⅱ. 경제지표 Preview *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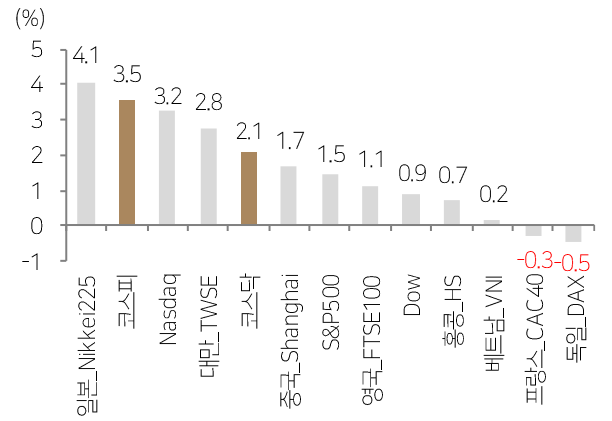
Ⅲ.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Ⅳ. Key Chart & 핵심지표 *5p*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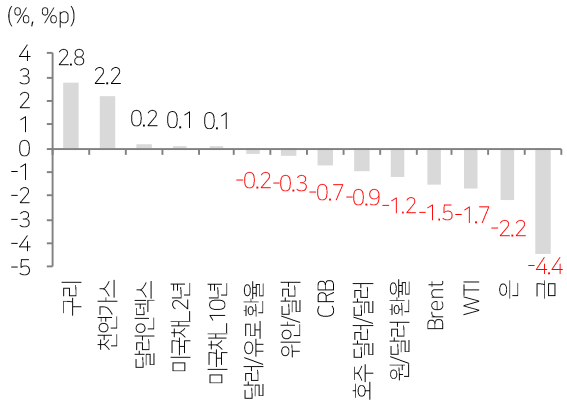
I .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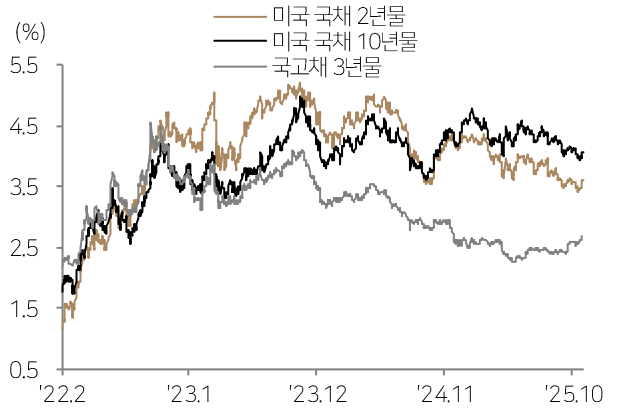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10/24일 대비 10/30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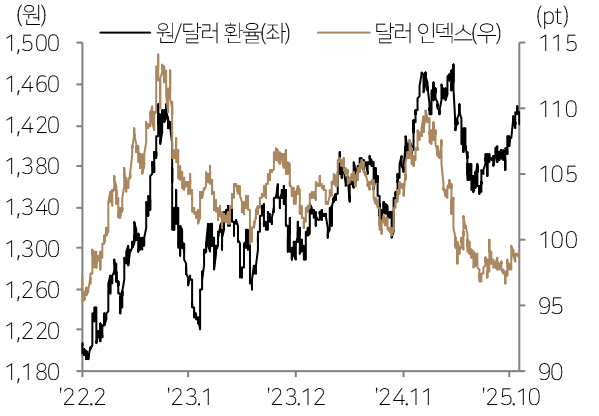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10/24일 대비 10/30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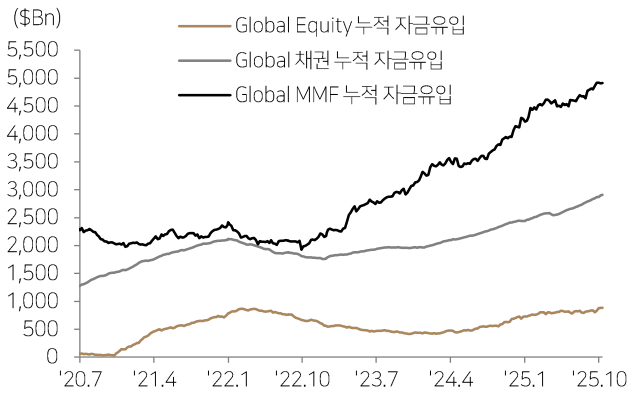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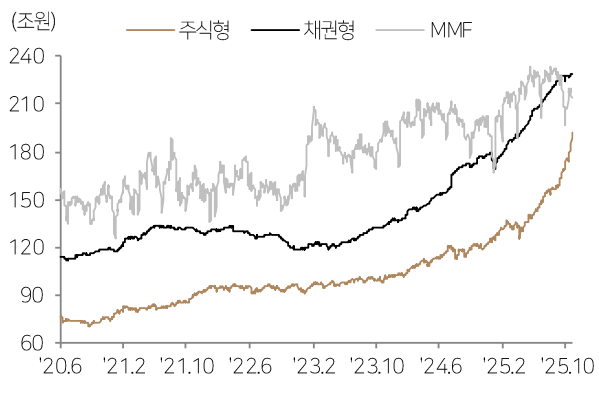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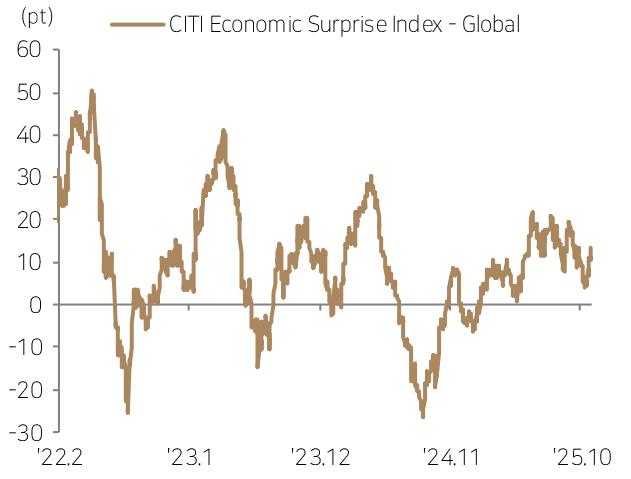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 지난달 지연된 CPI의 예상치 하회도 우호적인 소재였지만, 심리지표 내에 속한 물가 항목들이 안정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부담을 줄여준 상황이기도 했음. ISM 제조업/서비스업 지수 내 물가 항목과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1년 후 기대 인흘레이션 전망치의 안정화가 이어질 경우 12월 추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안도감 형성엔 도움을 줄 수 있음
- 미국 정부 고용지표의 발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대신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되는 만큼 대략적인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듯. 8월과 9월 지표는 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 중. 고용 지표의 완만한 둔화가 지속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음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5-11-03	미국	10월 ISM 제조업 PMI	pt	49.2	49.1
2025-11-03	미국	10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pt	-	52.2
2025-11-03	중국	10월 차이신 제조업 PMI	pt	50.7	51.2
2025-11-04	미국	9월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	만건	-	722.7
2025-11-04	미국	9월 무역수지	b$	-	-17
2025-11-04	한국	10월 CPI	%yoy	2.2	2.1
2025-11-05	미국	9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	-
2025-11-05	미국	10월 ISM 서비스업 PMI	pt	50.9	50.0
2025-11-05	미국	10월 ADP취업자 변동수	만건	2.5	-3.2
2025-11-07	중국	10월 수출/입 YoY	%yoy	-/-	8.3/7.4
2025-11-07	미국	11월(잠정)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pt	54	53.6
2025-11-07	미국	10월 실업률	%mom	-	-
2025-11-07	미국	10월 비농업고용자수	만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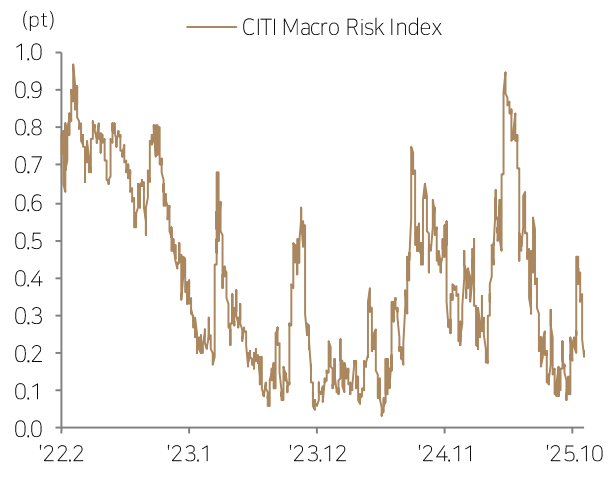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11/4	미국	하	2025년 미국 주지사·주의회 선거	▪ 2025년 미국 일부 주에서 주지사 및 주의회 의원 선출. 보궐선거 외 주단위 선거로는 버지니아와 뉴저지가 있음(주지사 및 상하원) ▪ 버지니아는 의회 민주당, 주지사 공화당. 현 주지사가 연임 불가 상태여서 민주당의 탈환 여부가 포인트. 뉴저지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역
11/6	영국	중	BOE 통화정책 회의	▪ 지난 9월 회의에서 7:2로 금리 동결.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2%) 수준으로 회귀할 것을 예상하나,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영국의 현재 CPI 는 +3.8% 수준) 향후 인하 결정은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 ▪ 금리 동결이 유력시되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질 경우 향후 금리 인하도 기대 가능
11/7	미국	상	10월 고용보고서	▪ 셧다운 여파로 미국 고용 지표 발표가 9월부터 이연 중. 시장은 자체적으로 부진한 실물지표 전개를 상정하고 가격에 반영 중 ▪ 즉각적으로 침체 우려를 자극할 수준의 고용지표 급락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유동성 환경에 대한 우호적인 소재 역할로 작용할 것 반대로 예상보다 견조한 고용이 확인될 경우 10월 FOMC 기자회견 내용과 함께 변동성 확대 상황이 전개될 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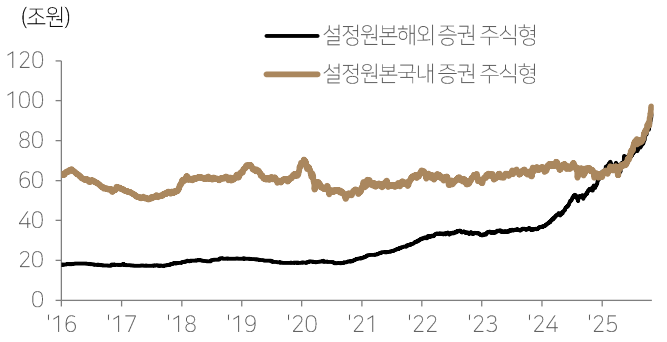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10/27~10/30) 증시 동향	▪ KOSPI(+3.7%), KOSDAQ(+0.9%) 상승. KOSPI는 디스플레이(+8.2%), 반도체(+5.5%), IT가전(+1.6%)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증권(-5.4%), 운송(-4.6%), 비철,목재등(-4.2%) 업종 하락. 미중 무역합의 및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 발표 등에 힘입어 4,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 단기 급등 부담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FOMC의 '매파적 인하' 스탠스 등으로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며 4,080포인트대에서 마감 ▪ DOW(-0.2%) 하락, S&P500(+1.2%), NASDAQ(+2.7%) 상승. 예상치를 하회한 9월 CPI와 양호한 3분기 실적에 상승하며 시작한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와 젠**슨황**의 AI 수요 자신감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 파월 의장이 12월 추가 인하에 대해 매파적 스탠스를 보이자 다우와 S&P500은 하락. 다만 엔비디아가 시총 5조 달러를 돌파 등 AI 기대감이 지속되며 나스닥은 상승 마감
차주 (11/3~11/7) 증시 전망	▪ 10월 FOMC에서 25bp 인하를 발표했음에도 12월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잔존. 미-중간 긴장완화 뉴스도 등장했으나 스몰딜 수준이라는 평가가 우위. 메타의 급락 등 테크주들의 변동성 출현. 대형 이벤트들을 통과한 가운데 주도주들의 변동성이 나타난 상황이 불편한 것은 사실. 그러나 연준은 선제적 금리인하 과정 진행 후, 인플레이션 압력을 관망하는 순서의 정책 운용 가능성이 높아 보여 12월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유동성 공급 기조 속 연내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 역시 유효. ▪ 전일 빅테크들의 변동성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해당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지출이 부담이라면 해당 투자에서 중간재를 수주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음. 대외 변수에 대한 내성이 강한 AI 테마(반도체와 전력기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 미국과의 투자 협상 관점에서 핵심 산업으로 인지되는 조선, 기술 협력 관점에서 통신장비도 관심 있게 볼 필요. 트레이딩 대안 중 하나는 구리 등 산업용 원자재 가격의 강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철금속에 대해서도 관심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Ⅳ.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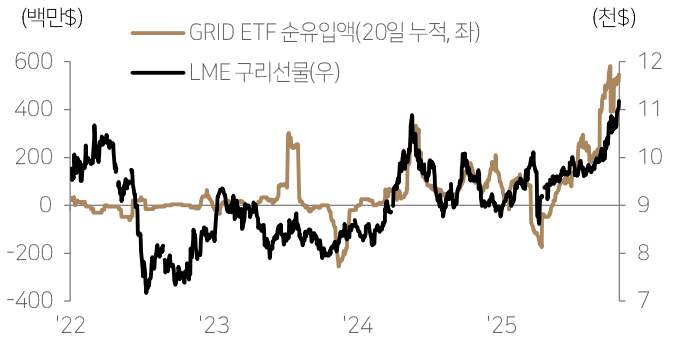
국내 증시와 직접 관련된 유동성 지표들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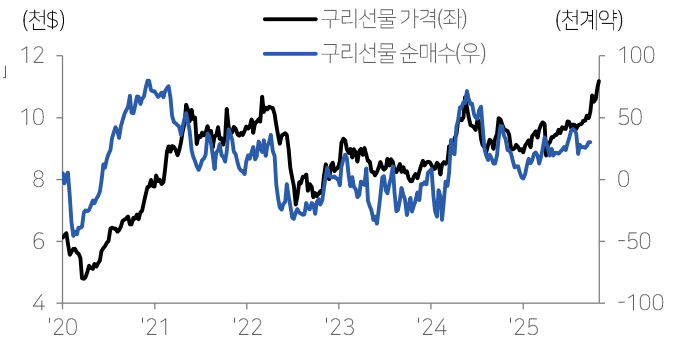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KOSPI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 유관 자금 역시 가파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음. 주중 국내 증시 고객 예탁금은 81조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
- 결국 멀티플 확장의 가장 직접적인 동인 중 하나가 유동성의 유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주식 매수 여력과 직결되는 예탁금의 증가는 멀티플의 추가 확장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소재가 될 수 있음
- 예탁금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형 펀드 플로우에서도 마찬가지 강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2020년대 들어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 잔액은 60조원 대에서 답보상태였던 반면, 24년 이후 해외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강하게 진행되면서 금액 역전 현상도 나타났던 바 있음.
- 그러나 연 중반부터 국내 주식형으로도 그에 못지 않은 빠른 속도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고객 예탁금과 더불어 기존에 비해 높아진 멀티플 수준을 정당화 시켜 줄 수 있는 소재

단기에 자금 유입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유입된 전력망 ETF와 신고가 영역에 진입한 구리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중장기s 관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산업 중 하나가 전력기기. 해당 산업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인 GRID US ETF는 최근 빠른 자금 유입이 진행 중. 29일 기준, 20일 누적 순유입 금액은 +5.5억$가 유입을 기록, 종전 최고치의 2배에 달하는 사상 최고치 수준의 유입액 기록 중
- 한편,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재개하며 11,000$ 선을 돌파하는 모습. 눈 여겨 볼 부분은 비상업용 선물 순매수 포지션이 기존 고점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것. 다소 비약은 있지만 투기적 수요가 아닌 실수요 중심의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 수 있음
- 글로벌 제조업 사이클의 순환적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가파른 구리 가격 상승은 결국 전력 인프라와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최근 관련 ETF로의 강한 자금 쏠림이 단기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추세는 유효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